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사단법인 한국계육산업협회(가칭)

발행 및 편집인 : 김 홍 국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TEL(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02)263-3598, 3599

제2권 제3호 통권9호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예방관리의 정착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육규모의 증대와 시설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 및 단지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막대한 지원자금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생산물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산물가격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산물가격이 높으니 상당한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생산성의 저하로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다 못해 터질 지경이다.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특히 질병에 의한 원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시설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인가.

이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위별 사육수수의 증가와 밀집, 집단화 사육체계는 집단 방역관리가 절대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는 사실을 가볍게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밀집, 집단방역의 1차단계는 병원체의 침입을 차단하여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양축인이 차단이나 예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단, 밀집화 사육체계에서의 차단과 예방관리는 전문성과 치밀성이 요구되므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 경 록

남덕씨니테크  
이학박사

지금까지의 방역관리는 치료적 관리에만 치중해서 가능했고 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료적 단계까지 가서 해결하는 식으로는 사육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으므로 예방관리의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관리를 하면서도 과학화, 전문화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불안해서 결국은 포기하거나 용두사

미 식으로 도중하차하기 마련이므로 관련기관의 지원제도도 능동적예방관리 지도형태로 협조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사육 농장은 각각 분산되어 있더라도 계열주체에서 보면 집단농장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계열화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농장 개별로 각자 해결하는 식으로는 계열주체에게 책임이 없고 편리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방역문제 만큼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계열화 업체의 계약사육 농장관리도 집단 방역차원에서 계열주체가 종합관리할 때 계약사육 농장의 방역수준도 향상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계열화 사육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절대 안전시설, 안전지역은 없다.

방역의 제일보는 예방관리에 있고 방역원칙을 준수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